

라이터용 PS 국내수요 어찌될까?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 반덤핑 여부 4월23일 최종판정

무역위원회가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1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덤핑수입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4월2일 중국산 1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재심)과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의 덤핑 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피해 유무 조사(원심사)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들었다.

공청회에는 국내 생산자단체인 한국라이타협동조합과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신현식 변호사, 정인화 회계사 및 공급국 정부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중국산 1회용 포켓형 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덤핑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재발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중국산 1회용 포켓형 라이터는 1997년 11월7일부터 5년 동안 덤핑방지관세를 36.42-100.10%를 부과해 왔다.

또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산 1회용 포켓형 라이터는 2002년 10월10일 조사가 개시돼 2003년 2월19일 덤핑률 8.91-124.64% 및 산업피해 예비긍정판정이 내려졌으며,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1회용 포켓형 라이터의 2002년 국내시장 규모는 119억이며, 내수가 60억원(50.4%), 수입은 59억원(49.6%)인 것으로 파악된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주장한 사실과 자료를 분석해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후 2003년 4월23일 국내산업 피해 여부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09>